

제3장

## 명대 주자학과 양명학 연구

선병삼(승실대학교)

##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해당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관 학회(연구소)의 논문(KCI)을 중심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 26종, 유교학 4종, 인문학 4종, 중국어와문학 1종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7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주제별로 구분하여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겠다.

## 2. 주제별 분류

### 1) 양명학(양명후학) 관련 논문(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재목	마음 체화의 장으로서 ‘몸’ - 왕양명의 ‘신심지학(身心之學)’ 이론을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박성호	왕양명의 양지와 정산의 공적영지 개념 비교 - 마음공부의 주체와 방법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세정	왕수인의 양지철학과 함석헌의 씨알사상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상훈	왕문 태주철학의 의미와 성격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최재목의 「마음 체화의 장으로서 ‘몸’ - 왕양명의 ‘신심지학(身心之學)’ 이론을 중심으로-」는 서론에서 체화된 인지와 관련된 최근의 업적들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서양의 전통 철학과 초창기 인지과학에서

는 몸의 역할을 간과한 채 몸이란 뇌의 주변장치 정도로 이해했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이를 반대하며 몸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몸을 마음 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입장은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을 통해 한국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최근 정제두 양명 심학을 신체관, 의학적 심 등으로 풀어가는 논문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정제두 학설의 중심으로 평가되는 생리(生理)는 그 신체적인 요소가 많아 상당히 매력적인 접합점을 보인다.

이제 최재목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양명은 ‘신심(身心)’ 이라 하여 ‘몸과 마음’ 을 분리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합체하여 그냥 ‘뉘’ 이라는 한 글자로 축약 표현해도 될듯하다. 몸-마음으로 하는 ‘뉘[身心]의 학문’ 을 양명은 ‘신심지학’ 이라 규정한 것이다. ……왕양명이 말하는 ‘몸’ 이란 ‘마음이 체화된 것’ 이고, ‘마음’ 이란 ‘몸의 자각점’ 이다. 다시 말해서 ‘몸’ 은 ‘마음의 형체=형식=물리화 또는 운용성=표현’ 이었다. 그리고 ‘마음’ 이란 ‘몸의 자각점=탁월한 인지 활동 또는 주재성=중심’ 이었다. ……몸은 이러한 개체성과 초월성의 원한 구조 속에서 각각 향상성을 유지한다. 그것은 몸의 개별-초월의 모듈을 운영하는 주체인 ‘영명(靈明) = 양지’ 에 의한 것이다. 양지는 개체성의 중심을 만드는 동시에 세계와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 또 다른 중심을 만드는 원리이자 힘이다. 양지는 이 두 중심을 넘나든다. 몸은 이런 마음을 체화해 있는 것이다.”

새로운 표현을 잘 만들어내는 논자의 능력을 본 논문에서도 발휘하고 있다. 다만 논의는 새로울 것이 없다.

박성호의 「왕양명의 양지와 정산의 공적영지 개념 비교-마음공부의 주체와 방법을 중심으로 -」는 양명학과 원불교를 비교한 논문이다. 정산(鼎山, 1900-1962)은 원불교(圓佛敎)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小太山 朴重彬, 1891-1943)의 수제자로 소태산을 보필하여 원불교의 교리를 제정하고 기반을 닦는 데 공헌을 했다. 소태산 사망 후에는 2대 종법사가 되었다. 여담으로 송실대 고 안병욱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가장 아름다운 얼굴'에서

정산을 두고 한 말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본 한국인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익산 원불교 총부에서 본 송정산 선생의 얼굴이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닳고 닳았으면 지혜와 자비로움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에 감동했다.”

박성호 이야기를 들어보자. “본 논문은 왕양명(王陽明)의 양지(良知)개념과 정산(鼎山)의 공적영지(空寂靈知) 개념을 마음공부의 주체와 방법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이를 통해 두 개념 간의 내재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음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양지와 공적영지는 모두 마음공부의 주체로서 그 텅 빈 가운데 영명한 감응의 작용을 따라 갖가지 의념과 분별을 나타나게 하는 동시에 그 의념의 선악과 분별의 시비를 판단하고 취사선택하게 하게 한다. 한편 마음공부의 방법에서 있어서도 사육과 무명은 양지와 공적영지의 본체를 가려서 왜곡된 인식을 야기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경에 끌리거나 사육에 가리지 않게 함으로써 본연을 회복하여 그 작용의 온전함을 담보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김세정의 「왕수인의 양지철학과 함석헌의 씨알 사상」은 양지와 함석헌의 씨알 사상을 비교한 글이다. “필자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 속에서 유기철학을 중심으로 생명 살림의 길을 모색해 왔다. 특히 왕수인(王守仁, 호는 陽明, 1472 ~ 1528)의 철학사상 속에서 유기체적 세계관, 생태론적 세계관, 돌봄과 공생의 길 등을 모색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탐색의 범위를 함석헌(咸錫憲, 1901 ~ 1989)의 ‘씨알사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왕수인이 비록 백성들을 삶과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였지만, 역사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백성들은 삶과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지 못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석헌을 기다려야만 했다. ……씨알이 주체가 되어 씨알들이 서로 손잡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경쟁과 갈등과 소외와 지배의 문제, 그리고 자연과 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탈과 양지에 근거한 돌봄과 공생의 생명 살림의 길, 그것이 왕수인과 함석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이상훈은 매년 양명후학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그의 「왕문 태주철학의 의미와 성격」 또한 연속선상의 논문이다. 태주철학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당시 양명후학 중에서 현학의 위치를 접하기도 했거니와 양명학에서 근대적 맹아를 발견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학파가 바로 태주학파이다.

이상훈은 이렇게 말한다. “태주학자들은 당시의 유학적 관점을 뛰어넘어 각 개체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욕망을 긍정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존재가 하나(만물일체)로서 동등함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평등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이들 태주학자들은 현성양지와 영명한 양지심체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백성일용과 만물일체, 평등, 욕망 및 이상사회 등의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실험방법을 논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태주학자들은 기존의 교조적인 유학이 지녔던 형식적인 요소를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유학정신과 세계관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태주학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유교가 지배하던 당시의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주장은 그저 맹목적인 자유나 공허한 주체의식의 고양 정도로 치부되거나, 광기(狂氣), 의욕(意欲), 재기(才氣) 등의 발산으로 간주되어 그 가치가 폄하되거나 혹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적현실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논리 정도로 평가되고 말았다.”

이상훈의 글은 기존에 나온 많은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 2) 양명학의 실천 관련 논문(5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호	양명심학 관점에서 바라본 리더십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민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치양지의 생(生)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3	한정길	양명학에서 제시하는 쟁탈 해법과 지도자의 덕목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4	조지선	한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왕양명 철학의 고통 감정 이해와 공감교육 방법 모색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5	김세정	유교의 양지주체, 그리고 타자와 한 몸 짜기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2년도에는 양명학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별도로 정리한다. 사실 명대에 양명학이 현학(顯學)으로 올라서는데 강학활동을 통한 대중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양명학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적용 활용하는 접근법은 하등 특별할 것이 없다.

김민호의 「양명심학 관점에서 바라본 리더십」은 양명학을 리더십 분야로 응용한 글이다. 사실 리더십을 논하자면 굳이 양명학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기치인을 표방한 유학은 그 자체가 훌륭한 리더십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명학을 선택한 저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민호는 이렇게 말한다. “기존 리더십 연구에서 비롯된 다양한 리더십 개념의 공통 본질을 토대로 양명심학 근거를 확인한 결과, ‘리더와 구성원 간 상호 작용’ 측면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 관계가 쌍방적 친(親)의 관계이고, 리더십의 대상이 애물(愛物)까지 확장되며, 리더와 구성원을 일체(一體)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정으로서의 속성’ 측면에서는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자기완성이자 치양지로서 사상마련(事上磨鍊)을 통해 길러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공동의 목표’ 측면에서는 천지만물 일체의 자각으로 시작되는 ‘생명성의 부여’와 유기체적 대동사회라는 ‘완전한 생명의 구현’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에의 대응’ 측면에서는 리더의 임무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양지에 비추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는 것이며, 양지가 변화에 있어 시비판단의 준칙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양명심학 관점에서의 리더십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구성원을 한 몸(一體)처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김민호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치양지의 생(生)」 논문에서 사회갈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주제를 다룬다.

치양지의 생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인지 그의 말을 들어보자. “본 연구는 양지의 실현이 주체와 대상을 성장시키는 생(生)의 작용으로서 사회갈등 해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천지의 큰 덕은 생(天地之大德曰生)’이라는 주역 계사

천의 명제가 음양(陰陽), 사시(四時), 오행(五行), 사단(四端)과 사덕(四德)을 거쳐 양지(良知)까지 생(生)의 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하였다. ……치양지의 생(生)은 재(才)·덕(德)·체(體)의 통합 성장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 논문은 천지만물일체 관점에서 생명의 온전성을 ‘오행의 생명 순환 위에서 생명의 재(才)·덕(德)·체(體)가 온전하게 보전되고 성장하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치양지가 주체와 대상에 있어 생명의 온전성을 동시에 확충하게 하는 생(生)의 작용이므로, 충분히 사회갈등 해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치양지를 갈등 해소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을 뿐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한정길도 갈등과 투쟁이 만연한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방안을 양명학에서 찾아본다.

한정길의 「양명학에서 제시하는 쟁탈 해법과 지도자의 덕목」에서 논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왕양명은 당시의 현실을 공리의 독성이 습성을 이루어 서로 다투으로써 죽음을 눈앞에 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는 쟁탈 원인을 ‘자사(自私)’와 ‘물욕(物欲)’에서 찾는다. 그것들이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본심을 가려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반구(反求)’와 ‘극기(克己)’, 양지에 대한 자각과 치양지를 쟁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양명학에서는 양지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양명에 따르면 지도자는 민중을 사랑하고 민생을 보살피야 하고, 시대정신을 분명히 인식하여 자신이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자각해야 하고, 자신이 이끄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또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 역량과 실천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덕목으로는 도덕성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 정책 시행, 민중의 각성과 참여 의지 고취가 그 실천 방법으로 제시된다.”

조지선은 「한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왕양명 철학의 고통 감정 이해

와 공감교육 방법 모색」에 강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조지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구성원 간의 공감 형성과 갈등의 해소는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공감 능력을 기르는 공감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행복에 공감하는 것보다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한다. ……양명철학에서 고통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양지(良知)의 자각(自覺)과 실현에 민감하고 강력하게 작용하며, 심즉리(心卽理)부터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기까지 양명의 모든 공부에 연결된 중요한 감정이다. ……중전의 연구들은 양명철학에서 즐거움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집중해 다룬 반면 고통의 역할과 의의를 다루는 데는 소홀하였다. 이에 …… 양명의 3대 학설에서 고통 감정이 갖는 역할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양명이 제시한 진성즉달 하는 양지 능력을 고통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해하고, 공감 교육적 측면에서 진성즉달 하는 양지의 실현이야말로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이에 바탕한 공감의 실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세정의 「유교의 양지 주체, 그리고 타자와 한 몸 짜기」는 소비사회와 갈등사회에서 양지 주체의 기능을 탐색한다. “ ‘주체’ , ‘타자’ , 그리고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 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학사상 가운데 하나인 양명학에서 ‘주체’ 와 ‘타자’ , 그리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 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 5장 ‘양지주체의 실현, 타자와 한 몸 짜기’ 에서는 참된 주체가 되기 위한 양지 주체의 실현 방안으로 치양지(致良知)와 친민(親民)에 대해 고찰하고, 타자(萬物)와의 한 몸 짜기(一體)와 더불어 양지 실현의 귀결처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 김민호, 한정길, 조지선, 김세정의 논문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논문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들이 밝힌 내용은 양명학에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식의 일반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 명대 학술 일반 논문(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걸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2	선병삼	명대 유학의 정초자, 조단 학술사상의 종합적 고찰	한국 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3	선병삼	월천 조단의 이학사상 연구 -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4	조남호	니훤순의 비판을 통해 본 담약수 철학의 질증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소

진확(陳確, 1604-1677)은 한국 학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말 청초 중요한 실학자이다. 오걸은 「성 일원론[性一元論]의 재건 - 陳確 인성론의 사상적 함의 및 본보기의 의미」에서 진확 사상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한다. “진확은 맹자의 性善論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송대의 유학자가 인성을 천명의 성[天命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으로 나누는 성 이원론의 방식에 반대하였으며, 氣·情·才는 모두 성의 내용이고 옳은 후천적 습관에서 비롯되며 ‘확증하여 재질을 다함[擴充盡才]’을 통해 선의 필연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논증에 있어서 비교적 엄밀한 논리적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그의 사상사적 위상을 이렇게 말한다. “진확이 재건한 일원적 인성론은 위에서부터 陽明과 蕺山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顏元과 戴震의 길을 터주었으며, ‘천리를 지키고 인욕을 없앴[存理滅欲]’이라는 도덕적 엄격주의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욕망을 성취한다. [達情遂欲]’라는 시대적 발전 조류도 구현하여 명청 즈음의 학술 사조에서 아주 중요한 본보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병삼은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평가받는 조단 연구 성과를 2편으로 발표했다. 먼저 「명대 유학의 정초자, 조단 학술사상의 종합적 고찰」은 조단을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매김하는 그 근거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선병삼은 이렇게 말한다. “월천(月川) 조단(曹端, 1376-1434)은 한국 학계

에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조단은 명대 전기 유학사를 다룬 저서들이나 개괄적인 논문들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학자이다. 역대의 평가가 말하듯 조단은 명대 유학의 정초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조단의 이학사상을 실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첫째, 실천적 고찰은 조단의 생애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단의 생애를 살필 적에 그가 활동한 명대 건국 초기 상황과 평생 유학학정으로 봉직하면서 유생들을 교육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 이론적 고찰은 주돈이 이학사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조단은 「태극도설술해(太極圖說述解)」와 「통서술해(通書述解)」를 지어 주돈이 사상을 명대에 본격적으로 현창한 첫 번째 인물이다. 본 논문은 명대 유학의 정초자라는 평가를 중심에 두고, 조단 이학사상의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명대 이학 특히 명대 심학의 시대정신과 방향성과의 연속성 위에서 고찰한 본 연구가 향후 소위 창신(創新)보다는 법고(法古)의 흔적이 농후한 조단 이학사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어서 조단 학술사상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는 「태극도설술해(太極圖說述解)」와 「통서술해(通書述解)」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역대로 조단은 명대 이학의 종장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명대의 주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논문은 조단의 이학사상을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태극도설」과 「통서」가 주돈이 이학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처럼,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는 조단 이학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첫째로 「태극도설술해」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태극도 그림과 태극도설 문자의 술해이다. ‘도(圖)’ 술해는 주자의 태극도 해설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고, 조단 자신의 생각을 소주로 밝혔다. ‘설(說)’ 술해는 주자의 주해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 조단 자신의 견해를 기술했다. ‘태극은 리’ 라는 입장과 ‘태극은 활리(活理)’ 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둘째로 「통서술해」는 ‘통서총론’, 「통서」에 대한 술해, ‘통서후록’ 으로 이루어져있다. ‘통서총론’ 은 「통서」와 「태극도설」에 대한 전현들의 평을 전체

하여, 조단 자신이 「태극도설」과 「통서」를 이해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밝힌다. ‘통서후록’에서 조단은 이정이 주돈이의 이학을 계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는 송대 이학의 종장으로 주돈이를 확립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에 관한 입장과 ‘주정(主靜) 공부’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선병삼의 상기 두 논문은 한국 학계에 조단 학술사상의 특징과 그 사상사적 위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소개해 주었다.

나흠순은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명대 주자학자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학자다. 잘 알려진 것처럼 퇴계는 나흠순의 이기론을 이기 일물론이라고 배척했고, 율곡은 학문적 참신성이 퇴계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나흠순은 주자학을 신봉하면서도 수정을 가한다. 리(理)는 기(氣)의 조리(條理)이다 하여 리를 실체(實體)로 상정하는 이기이원(理氣二元)의 관점을 비판한다. 도심인심(道心人心) 체용성정(體用性情)을 주장하여 도심과 인심의 관계를 체와 용, 성과 정의 관계로 상정한다. 이는 주자의 입장과 확연히 다르다.

조남호는 「나흠순의 비판을 통해 본 담약수 철학의 절충적 성격」에서 나흠순이 왕양명과 더불어 명대 심학의 진영을 차지했던 담약수를 비판한 내용을 다룬다. 담약수는 수처체인천리(隨處體認天理)를 주장하며 스승인 진백사의 주정공부와 왕양명의 치양지를 종합하고자 했다.

조남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흠순은 담약수의 철학 태도를 한마디로 양용과 유사하고 학술 수준이 양용보다 못하다고 폄하하였다. ……담약수 철학의 절충적 태도를 정리하면 나의 마음을 크게 확대하여[大心] 천하 만물 어느 것에서나 천리를 체인해야 한다[隨處體認天理]고 주장하였다. 커다란 마음에 이르려면 마음이 중정(中正)함에 이르고, 중정하면 마음이 저절로 발동하여 대응하는 자연(自然)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수처체인천리 중지가 정호(程顥)와 이통(李侗)의 체인천리를 계승하였고 진현장의 인가를 받았기에 송명 학술의 정통이라고 자처하였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심학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만물의 천리를 격물치지하는 정이와 주희의 학술 경향을 따랐다. 주자학 관점에서 보면 담약수의 리기학

일론은 합이란 글자에서 이미 리기를 둘로 나눈 사고가 있고, 중정론은 중정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문제가 남는다. 인물성론에서도 천지지성과 기질지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점을 나흠순은 지적한다. 심학 관점에서 보면 진현장의 본체에 관하여서도 담약수는 논의를 회피하였고, 담약수의 수처체인천리도 궁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물망물조장도 허위체험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이 점을 나흠순은 문제 삼는다. 주자학 측면에서 분석적이지 못하고 심학 측면에서도 심체의 개오를 설명하지 못한 점에서 담약수 철학의 절충적인 경향이 가져온 문제를 노출하였다.”

#### 4) 명대 유학과 조선유학 비교 논문(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용태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 -기호남인 성호학과와 노론 북학과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2	정종모	퇴계(退溪)와 감천(甘泉)의 리(理)에 대한 해석 비교 -16세기 동아시아 심학의 지평에서-	철학탐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	단윤진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학회

박용태의 「명말청초 고증학의 경세치용과 18세기 조선 실학의 형성 - 기호남인 성호학과와 노론 북학과를 중심으로」는 실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다.

박용태의 말을 들어보자. “청대 고증학은 고전과 경전의 복원(復原)을 통한 법고창신(法古創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방법론을 주창한 고전주의 학파이다. 하지만 18세기 고증학을 수용하였던 조선의 유학계는 협소한 자구(字句) 해석과 문자학적 훈고(訓詁)에 집중하는 고증학의 경전 고변 이 학문적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또 하나의 지적 유희에 젖어 들어 훈고적학 공리공론으로 고증학이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명청 교체기 초기 고증학의 명대 3대 유로(遺老)

인 고염무, 황중희 왕부지 등에 대해서 조선의 유학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 이들의 특징은 경제치용의 실용적 경제론을 주창하는 학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왜 이들이 받아들였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명말청초 경제치용의 고증학은 근본적으로 공사 사를 대립적 개념으로 상정했던 송대 성리학파 다르다.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수용은 기호 남인계 성호학파에서부터 제기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론계 북학파에서는 사욕과 탐욕을 위한 근대 자본주의 욕망구조의 승인이 아닌 국가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즉 공적 영역에서의 사리(私利)의 수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화와 욕망의 공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유교주의적 경제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용후생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한다.”

박용태의 상기 연구는 당파적 대결이 치열했던 기호남인과 노론이지만 실학이라는 공통적인 담론의 장 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한 글이다. 그는 명말청초의 소위 유로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이를 논한다.

퇴계 이황은 사칠논쟁을 전개하면서 이발(理發)을 주장한다. 후에 율곡 이이는 이발을 이동(理動)으로 풀고, 퇴계의 호발론(互發論)은 주자학 공리를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감천 담약수는 명대 학술계를 풍미한 양명심학과 더불어 명대 심학을 양분했던 감천학파를 창시한 인물이다. 진백사의 수제자이고, 속학(俗學)으로 전락한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왕양명과는 지기(知己)의 교분을 나누었다.

정종모의 「퇴계(退溪)와 감천(甘泉)의 리(理)에 대한 해석 비교 —16세기 동아시아 심학의 지평에서」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모종의 사상사적 연결 구도를 찾고자 한다.

정종모는 이렇게 말한다. “본 논문은 16세기 동아시아 유학의 중요 인물에 속하는 담감천(澹甘泉)과 이퇴계(李退溪)의 리(理)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철학을 심학(心學)의 지평에서 비교한다.”

퇴계심학과 양명심학 비교가 한때 한국 학계의 뜨거운 주제였다. 이제 정종모는 퇴계심학과 감천심학의 조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16

세기 중국 유학에서 심학 전통은 양명의 심학과 감천의 심학으로 분화했으며, 동시대 조선에서는 퇴계가 주자학의 심학적 경향을 드러내었다. 한편, 기존의 여러 연구는 퇴계 심학과 양명 심학 간의 동이(同異)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본 논문은 퇴계의 철학을 ‘심학’으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양명 심학보다 오히려 감천 심학과 비교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단윤진의 「王夫之와 丁若鏞의 『中庸』, 首章 ‘天命之謂性’에 대한 註釋 比較研究」는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평가받는 두 인물을 비교한 글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용』 수장의 천명지위성을 고찰한다.

단윤진은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중용』 1장 ‘천명지위성’에 대한 왕부지와 정약용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 ‘천’에 대한 관점에서 왕부지에게 ‘천’은 기가 쌓인 것으로 ‘천’은 비인격적이고 비주체적인 자연천이다. 정약용에게 ‘천’은 영명무형한 주재천으로 인격적인 상제천이다. 음양오행에 있어서 왕부지에게 ‘천’은 음양오행의 운동이며 음양오행은 본체인 동시에 작용이다. 정약용은 음양오행은 헛살이 비치거나 가릴 때 비롯되는 것으로 체질은 없고 명암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한다. 둘째, 왕부지는 ‘명은 법령’임을 강조한다. 정약용에게 ‘명은 도심’의 소리이다. 셋째, ‘성’에 있어서 왕부지는 성은 ‘생의 리’로 성즉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리’는 기의 리라는 점에서 주자와 차이가 있다. 정약용은 ‘성은 기호’라 강조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천명지위성’이라는 같은 문장에서 각각 왕부지는 ‘명’에 정약용은 ‘성’에 중점을 둔 것은 서로간의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命’과 ‘性’을 인간에게만 한정시켜 인간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공통된 견해이다. 넷째, 글을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왕부지와 정약용은 모두 선대의 고증을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삼으며 선대 유학자를 비판하고 인용한다.”

『중용』 1장 비교 분석을 통해 왕부지와 정약용의 견해를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윤진이 애초에 밝힌 왕부지와 정약용 사상, 혹은 중국사상과

한국사상의 비교 고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시를 제시해야 할 것 같다.

## 2) 경학연구 관련 논문(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희정	계본의 『대학사존(大學私存)』 연구 - 양명학적 경학의 한 예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경학사에서는 명대를 일종의 암흑기로 평한다. 양명학자들이 심즉리를 제창하면서 주자의 즉물궁리(卽物窮理)를 외부의 정리(定理)를 추구하는 지식 위주의 학문이라고 공격했다. 또한 오경은 내 마음의 각주(脚註)라는 구호가 양명심학 내에 널리 퍼졌다. 어찌되었든 경학 연구는 경전을 높이고 객관주의를 지향하는데 반하여 심학은 경전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관주의를 표방했기에 경학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았다.

조희정의 「계본의 『대학사존(大學私存)』 연구-양명학적 경학의 한 예시-」는 양명학자의 경학 연구를 소개한다. 계본은 한국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양명후학 연구사에서 계본은 왕용계와의 논변 당사자로 많이 등장한다. 계본은 용척설(龍惕說)을 주장하면서 왕용계 등이 주장하는 현성양지(現成良知)를 비판했다.

조희정은 먼저 계본을 소개한다. “계본(季本:1485-1563)은 왕양명의 직전 제자로 절중왕문(浙中王門)으로 분류된다. 그는 양명좌파의 자유분방함을 좋아하여 욕망에 빠지는 것을 비판하고 마음 본체의 주재(主宰)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기존의 설명을 부정하고 생동성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인 용(龍)으로 설명하는 ‘용척설(龍惕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자들이 경전을 탐구하지 않고 공허하고 소략하게 강설만 일삼는 것을 걱정하여 경전을 궁구하는 것에 힘썼는데, 20여 년 동안 120권의 저서를 저술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양명학적 경학에 관한 연구가 미비했던 원인은 문자에 구속됨을 경계하고 실천과 마음을 통한 체득을 중시한 내부

적 요인과 연구 자료의 부족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계본의 『사서사존(四書私存)』은 양명학적 경학을 연구함에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사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학사존』은 서문-본문-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계본이 자신의 의견을 주석으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주희의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 『대학장구』- 『혹문(或問)』의 형식과 흡사하다. 『대학사존』의 주석도 대부분 주희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양명학적 경학을 주자학의 경학적 위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본의 『대학사존』은 왕양명이 주장한 『고본대학(古本大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7장의 체제로 분장 되어 있다. 이는 계본이 왕양명의 중지를 따라서 성의(誠意)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경전의 뜻을 찾으려고 궁리하여 얻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본은 『대학』과 『중용』의 관계성을 중시하는데, 성(誠)을 통해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 공부로 근독(謹獨)을 강조하였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계본의 대학관은 격물(格物)의 물(物)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와 근독(謹獨)을 통한 공부법과 ‘지지(知止)-성의(誠意)-무자기(毋自欺)-근독(謹獨)-격물(格物)-지행합일의 공부’로 연결되는 구도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대학사존』에 대한 연구는 계본의 경학과 사상적 체계를 연구하는 시작으로 앞으로 『사서사존』과 『설리회편(說理會編)』 등의 저서들을 통해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명대 경학 연구는 간헐적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곡 정제두가 경학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남겨두었는데, 이를 중국 양명학과 구분되는 한국적 양명심학 특징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따라서 계본 등 중국 양명학자들의 경학 연구성과와 비교 고찰한다면 기존 한국 학계의 논의를 심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명대 사상사에서 대중(大宗)은 양명학이다. 이른바 심학이다. 그렇다면 양명학이 명대 사상계의 현학으로 등장하기 이전의 명대 전기 학술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선병삼의 「명대 유학의 정초자, 조단 학술사상의 종합적 고찰」은 이 문제에 착안한 논문이다.

선병삼의 말을 들어보자. “명대(1368-1644) 전체의 유학사를 통관하여 볼 때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기를 꼽자면 단연 명대 전기 유학사상이다. ……명대 유학사에서 양명학(심학)을 중심에 두었을 때 주자학을 계승한 명대 전기 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이 시기의 전체적인 경향은 과거로부터 전수된 학문(정주이학)을 갈고 닦으면서 내면화(실천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정덕 연간 이후 펼쳐지는 양명심학의 약진에 비하자면 학술적으로 단조로운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학계에서 명대 전기 유학사를 평가하는 관점은 두 가지 입장이 상호 보완하는 형국이다. 편의상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으로 지칭하겠다. ‘전통적 관점’은 황중희가 『명유학안(明儒學案)』에서 지적하듯이 명대 전기의 성리학자들은 여기도 주자, 저기도 주자로 주자학을 묵수하기만 했을 뿐 새로운 창신을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한편, ‘현대적 관점’은 명대 중기 이후 만개하는 새로운 사상적 전환, 특히 양명심학이 외부의 이식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명대 전기는 도리어 명대 중기 이후 유학사상을 키워낸 배태기로서 주의 깊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이다.”

선병삼의 입장은 이른바 현대적 관점을 받아들인다. 조단을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보는 입장이다. “명대 유학의 정초자로 평가받는 조단 이학사상 탐구는 명대 전기 유학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바로 조단 이학사상에서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색을 동시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호 대립과 충돌을 일으켰던 주자학과 심학적 요소의 결합이 어떻게 조단에게 가능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상호 충돌적일 수 있는 조단 이학사상의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유종주가 ‘선생을 오늘날의 염계라고 해도 가하다.’는 말에 착안하여 조단 이학사상의 주자학적 본질과 심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조단이 주돈이 학술의 계승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자학과와 양명학과 모두 주돈이 학술사상을 각 학파의 사상적 근원으로 삼는다. 이는 주돈이 학술사상에서 주자학적 요소와 양명학적 요소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동일한 논리로 조단의 이학사상에도 주자학적 요소와 양명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돈이가 송대 초기에 이학의 본질인 천명심성(天命心性)의 일관(一貫)에 기반을 두고 천인성성(踐仁成聖)의 토대를 세운 것처럼, 조단 역시 천명심성(天命心性)의 일관(一貫)과 천인성성(踐仁成聖)에 기반을 두고 원나라 이민족 통치를 거치면서 이단사설로 훼손되었던 이학(유학)의 본령을 재확립하고자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선병삼의 「월천 조단의 이학사상 연구: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를 중심으로」는 본인이 주장한 이상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힌 글이다.

조단과 주돈이의 상관성은 조단의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 분석을 통해 잘 드러난다. 「태극도설」과 「통서」가 주돈이 이학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처럼, 「태극도설술해」와 「통서술해」는 조단 이학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저작이기 때문이다. “유종주는 조단 이학사상의 본령을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1073)와 연결 짓는다. 유종주의 견해는 조단의 「연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보」 56세 조를 보면 ‘조단이 「태극도」의 깊은 의미를 「월천교휘도(川月交輝圖)」와 자작시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월천자(月天子)라고 자호했다. 이에 학자들이 월천선생이라고 칭했다.’ 하는 기록이 나온다. 사실 조단은 「태극도설술해(太極圖說述解)」와 「통서술해(通書述解)」를 지어 주돈이 사상을 명대에 본격적으로 현창한 첫 번째 인물이다.”

첫 번째, 「태극도설술해」에서 선병삼은 ‘태극은 리’ 라는 입장과 ‘태극은 활리(活理)’ 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조단의 「태극도설술해」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태극도 그림과 태극도설 문자의 술해이다. ‘도(圖)’ 술해는 주자의 태극도 해설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고, 조단 자신의 생각을 소주로 밝혔다. ‘설(說)’ 술해는 주자의 주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 조단 자신의 견해를 기술했다. 본론에서는 2가지를 주요 논제로 다뤘다. 첫째는 ‘태극은 리’ 라는 입장이고, 둘째는 ‘태극은 활리(活理)’ 라는 입장이다. ‘태극이 리’ 라는 입장은 태극(리)을 만유의 주재로서 확립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는 주돈이가 천도와 인도를 관통하는 태극을 통해 천인성성(踐仁成聖)을 추구하는 성학(聖學)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하다. ‘태극은 활리(活理)’ 라는 입장은 조단이 태극의 주재성을 강조하면서 주자가 태극의 동정을 부정한 듯한 표현을 문제 삼아 지은 「변려」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월인만천(月印萬川)에서 따온 월천(月川)이라는 호도 태극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조단의 이학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통서술해」에서 선병삼은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 에 관한 입장과 ‘주정(主靜) 공부’ 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논했다.

“조단의 「통서술해」는 ‘통서총론’, 「통서」에 대한 술해, ‘통서후록’으로 이루어져있다. ‘통서총론’ 은 「통서」와 「태극도설」에 대한 전현들의 평을 전제하여, 조단 자신이 「태극도설」과 「통서」를 이해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밝힌다. ‘통서후록’ 에서 조단은 이정이 주돈이의 이학을 계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는 송대 이학의 종장으로 주돈이를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 본론에서는 2가지를 주요 논제로 다뤘다. 첫째는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 에 관한 입장이고, 둘째는 ‘주정(主靜) 공부’ 에 관한 입장이다. ‘성(誠), 천도와 인도의 일관’ 이라는 입장은 ‘성상(誠上)’ 1장과 ‘성하(誠下)’ 2장을 통해 천도와 인도의 일관을 설명하는 데서 드러난다. ‘성상’ 은 태극이 체와 용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성하’ 는 태극이 사람에게 내재함을 설명한다. ‘주정(主靜) 공부’ 에 관한 입장은 정고정(靜固靜)과 동역정(動亦靜)의 주정 공부론에 잘 드러난다.”

퇴계학의 성격을 밝히는 논의는 한국 학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영역 중 하나다. 한때 한국 학계에서 퇴계 심학 성격 논쟁이 뜨거웠다. 퇴계 이황이 주자학자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적 성리학의 정초자로 퇴계를 자리 매김하고자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국 주자학과 다른 퇴계 성리학의 특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심학이 부상했는데, 사실 심학은 양명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정종모의 「퇴계(退溪)와 감천(甘泉)의 리(理)에 대한 해석 비교 —16세기 동아시아 심학의 지평에서」는 양명심학 대신에 감천심학을 그 자리에 넣으려는 시도이다. “주지하듯이 16세기 중국 유학에서 심학 전통은 양명의 심학과 감천의 심학으로 분화했으며, 동시대 조선에서는 퇴계가 주자학의 심학적 경향을 드러내었다. 한편, 기존의 여러 연구는 퇴계 심학과 양명 심학 간의 동이(同異)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본 논문은 퇴계의 철학을 ‘심학’으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양명 심학보다 오히려 감천 심학과 비교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종모가 감천에 주목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양명 심학은 심(心)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긍정하는 내향주의, 주관주의 형태의 심학이다. 반면에 감천 심학은 천리나 도체의 보편성과 객관성 및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심(心)과 물(物)을 관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감천이 보기에 심체(心體)는 개인의 주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만물을 포괄, 관통하고 있는 우주심(宇宙心)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감천의 철학을 심물합일(心物合一)의 학문 또는 혼일지학(混一之學)이라 부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천리와 심체 및 객관 세계의 합일에 대해 퇴계 역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천의 공부론은 수처체인천리(隨處體認天理)가 핵심이고, 나아가 성경(誠敬)의 수양을 강조한다. 이는 천리나 도체가 주관과 객관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공부론 차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퇴계도 천리가 인간과 세계를 두루 관통하고 있으며, 이를 언제나 성경의 마음으로 자각하고 체인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

처럼 본체론과 공부론 차원에서 감천과 퇴계의 철학은 서로 조응하는 바가 많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진실보한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퇴계심학을 양명심학이 아닌 감천심학과 연결 짓는 시도는 신선하다. 그러나 애초에 퇴계학을 통해 한국적 주자학을 정초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퇴계 심학에 주목했고, 이 과정에서 양명심학과 상관성을 주목했음을 상기한다면, 본 연구는 이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 4. 평가와 전망

총 17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양명학(양명심학과의 비교 등) 관련 연구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명·청대 유학 관련 논문으로 20년도 18편, 19년도 24편, 18년도 17편, 17년도 26편이었고, 올해 명대 유학사(주자학 양명학 분야) 총 17편 중에서 양명학(심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 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